



기아차 '신형 모닝' 타고 달려보니

디자인 굿, 승차감 굿 고속 질주에도 안정감



클러스터



음성인식 DMB 네비게이션



버튼 시동

'작다'는 이유로 혹은 '불품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경차를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7년 만에 돌아온 기아차 '모닝'이 이같은 편견을 뒤집었다. 고연비를 유지하면서 중형차급 이상의 럭셔리함과 편의성을 갖춰, 여성(女心)을 흔들고 있다.

기아차가 1800억원을 들여 7년 만에 풀체인지한 '신형 모닝'을 지난 27일 오전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타봤다. 엘리스 블루(회색 빛을 띤 파란색) 컬러의 신형 모닝을 몰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까지 왕복 100km를 달렸다.

차에 오르기 전, 우선 차체 외관을 살폈다. 눈에 띄는 건 호랑이의 코와 입을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 스포티지R·K7·K5로 이어지는 볼륨감 있는 모습의 기아차 패밀리룩을 계승했다. 앞바퀴 상부에서 시작하는 측면 라인은 손잡이를 따라 후면까지 위로 곧게 뻗어 스포티함을 더했다. 심플한 라인을 강조한 후면 LED 콤비네이션 램프는 다소 둔탁해 보일 수 있는 뒤태에 '엣지'를 줬다.

LED 콤비네이션 램프 엣지있는 뒤태

기아차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스포티 유틸리티안 경차”를 콘셉트로, 당당하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석에 앉았다. 의외로 넓었다. 동승한 기아차 관계자는 "경차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너드라이버인 만큼 운전석을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음션 상품인 음성인식 DMB 네비게이션도 운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족함이 없었다. 곳곳에 'AIR BAG' 마크가 새겨졌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윈도 윗쪽까지 커버하는 6개의 에어백을 장착, 안전을 강조했다. 센터페시아 상단 데크는 넓어져 각종 소지품을 올려 놓기에 충분했다. 조수석의 글로벌 박스 공간은 9.6ℓ 나 꽤 경쟁차종의 두배 가까이 넓었다.

에어백 6개 장착 윈도 윗쪽까지 커버

시동을 걸었다. 고급차에만 있던 스마트키를 경차에 적용, 신선했다. 손톱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했다는 그림타입의 도어핸들은 경차답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갖췄다. 좌측 온열버튼을 누르니 운전대(히터 스티어링 휠)가 바로 따뜻해졌다. 경차지만 겨울철 출퇴근 때마다 차가운 운전대 때문에 손을 호호 불 일은 이제 없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출발, 가속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차가 나왔다. 하지만 배기량이 작은 경차인 만큼 가속이 붙는 시간은 다소 더뎠다. 담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시속 120km, 휠의 흔들림이 없었다. 130→140→150km를 넘어서자 바람 때문에 차체가 조금 흔들리며 휠을 잡은 손도 약간 떨렸다. 경차임을 감안하면 그다지 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가속시 엔진 소음은 낮지만 카바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신형 모닝은 기아차 독자기술로 개발한 1.0 카바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해 최대출력 82마력, 최대토크 9.6kg.m을 구현했다. 연



본보 기자가 지난 27일 오전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최근 출시한 기아차 '신형 모닝'을 직접 주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는 자동변속기 모델 19.0km/ℓ, 수동변속기 모델 22.0km/ℓ 로 국내 경차모델 중 최고의 힘과 연비를 갖췄다.

고속도로 틀게이트에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1300원의 통행요금이 50% 감면돼 650원만 내면 됐다. 요금을 계산하던 여직원이 관심을 보였다. "새로 나온 모닝이예요. 지날 때 천천히 가세요. 자세히 보세요."

틀게이트를 지나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꼬불꼬불한 가로수길을 달릴 때는 차세대 차체제어장치(VDC)인 VSM이 차체를 안전하게 잡아줘 운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핸들감도 무겁게 있어 코너를 돌 때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었다.

작지만 강한 경차 새 패러다임 제시

가로수길에서 수차례 왕복 주행을 했다. 차체가 작은 만큼 회전이 편했다. 특히 주차할 때 빛났다. 작은 주차 공간에도 속 들어가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운전자들이 만족할 만했다. 게다가 4센서 후방주차 시스템까지 갖춰 주차가 더 이상 골치거리가 아니었다.

기아차는 올해 국내 10만대, 해외 12만대 등 총 22만대의 신형 모닝을 판매하고,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2년부터는 국내 10만대, 해외 14만대 등 총 24만대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시승한 모델은 1200만원대 자동변속기 모델, ▲스마트 모델 880만~960만원 ▲디럭스 모델 1000만~1050만원 ▲럭셔리 모델 1105만원이다.(수동변속기 기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1일~6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곳

기아차 설 명절 무상점검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1일부터 6일 까지 전국 22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코너에서 '설 명절 고속도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코너는 경부-죽안-칠곡, 서해안-화성-군산, 천안논산-정안, 남해-함안 등 22곳의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되며, 운영은 하행선 1~3일, 상행선 4~6일 등 각 3일간이다.

기아차는 이 곳에서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안전점검 서비스와 함께 차량 응급조치 서비스 및 정비 상담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인근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로 보내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장거리 운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동액·배터리·엔진·타이어공기압·오일류·전구류 등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모성 부품들은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이밖에 연휴기간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문 잠김, 타이어펍크 제외)로 시행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나 Q멤버즈 홈페이지(www.qmembers.com), 고객센터(☎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CBS Multimedia Group



Beyond CBS!

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CBS*

희망의 메시지와 건강한 여론이
CBS 멀티미디어 세상에 있습니다.



2010 CBS 캠페인·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